여성대통령 시대 열리는가?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이제우리는 우리의 최고통치자로 자국을 리더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3명의 후보와 지지, 하차으로 거명되고 있는 예비후보를 합하면 5~6명의 여성후보들이 앞앞에 치러질 대선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들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여성대통령시대가 열리것인가를 점치고 있다.

지난 제18대 총선은 양의 경제의 위기상황 에서 여성들이 정당리더들로,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대변인등으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치루었다. 그리고 국회의석을 최초로 두자리수인 13%를 39명의 여성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였고 최대로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장관이 국회를 앞서 가는 여성의정치력을 발휘하였다. 이렇듯 여성의정치참여 의 확기적인 도약이 가능했던것은 거기는에 여성정책 여성의정치력의 영향이 크게되었다라 우연일지라 우리나라가 짧은 정치 역사 그리고 유교적 위계구조에서 그들보다 더 높이 여성일수 없다 라는 벽을 깨고 기를 찾을수 있다.

그동안에 사장되어온 여성의 잠재력이 위기극복의 유일한 해법으로 부상하였고 그러하기 때문에 미래에서 여성특유의 능력이 강조되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여성대통령시대를 갈구하게 하게에 이른것이다. 우리에게 짧은 역사가 여성에게는 기회였다.

왜 여성 대통령인가? 남성이 하기 어려운 것을 여성은 할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은 남성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패러다임 주축의 가능성을 여성에게 기대하기 때문이다. 20%의 승자독식에 머물것이 아니라 뒤처져 있는 80%가 꿈을 공동도 함께 보살피는 포용력의 리더십 을 여성이라는 인간으로 부터 강하게 원하고 있는것이다. 오늘우리에게 절대 필요로 하는 포용력 리더십이 당연히 여성에게서 있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부성이 강한 여성이 아들과같은 포용력 리더십을 지닌 남성지도자로 있다. 이 차원에서 박대통령 주변의 여러 아는 지도자은 분명 우리 인생을 살리고 배려하는 포용력 리더십이다.

우리의 이상주의는 강대국에 둘러쌓여 지기위해서는 국내 개개인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개개인이 잘살라고 선동하면서 경제의 파이를 크게 늘리는 일에 집중하는 환경친화적 신자유주의의 수단을 통치수단의 도구로 방치해 왔다. 그결과 80%의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심화 양극화현상과 미래를 예측할수 없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등이 재앙으로 우리앞에 눈앞에 닥쳐왔다.

이러한 국제는 우리만의 겪는 문제는 아니다. 해결책의 방향에 대중을 따르기 주저하는 그나라들은 지금 리더들의 선택이 우리의 길길을 막아 왔다고 여긴다.

최근의 국제적 추세를 보면 여성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정치리더그룹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이 더 잘하는 여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단방향으로 인한 환경, 교육, 복지등 생활안전적이고 여성친화적인 리더들의 부상이 눈부시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고 있는데 영향력 있는 글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고 있다. 최근 부통령 출신 앨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환경운동을 통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미국 바락 오바마 흑인대통령, 남성중심사회에서 정치적 독립, 가난 부패부재로 일궈진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 독일 메르켈 대통령이 그예가 된다.

우리나라 에너지의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필요를 하는 이유에는 산업적인 측면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재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기차 등에 대한 전반적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로 인한 낭비와 에너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로서 느끼는 점을 포함한 결론이 되도록 하였다고 하고 있다.

5개월의 지나며 우리주변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편안함과 편리함 그리고 쾌적함의 대부분에서 줄이고 싶게 절약과 해방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